

## (주)대화연료펌프의 개성공업지구 시범단지사업

### I. 회사소개 및 현황

#### 1. 사업 개요

(주)대화연료펌프는 자동차 핵심부품 중 연료펌프와 연료System의 중요 부품 및 각종 Filter의 생산,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1982년 4월에 설립되었다. 1984년 2월 현대자동차의 부품공급업체로 선정된 후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였고, 1989년 이란에 연료펌프 제조기술을 수출(기술수출 1호)하고 1997년 인도네시아법인인 (주)펜타대화를 설립하는 등 지금까지 세계 50여개국의 우수기업에 기계식·전기식 연료펌프와 각종 부품을 공급하였다.

또한 1998년 12월엔 연료펌프 및 Filter 부분 QS9000과 ISO9001 인증을 획득하였고 2005년 7월에는 TS16949 인증을 획득하며 국제사회에서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2005년 2월에는 인천 송도 테크노파크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신제품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미국 Mercury, KOHLER 등 세계유수기업과 연료펌프 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동 분야의 세계 일류를 목표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 2. 사업 분야

- 연료펌프사업: 기계식 연료펌프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일류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약 500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 각종 Filter 사업: 자동차용 연료 Filter 분야에서는 1990년 자동차용 EFI Filter 개발에 착수해 국내외에 일류상품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 차종에 적용되는 획기적인 항균 Air Filter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성공업

지구 진출과 더불어 시작된 Oil Filter 사업은 세계 제일의 생산기술과 잠재력 있는 노동력이 조화를 이루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 폴리우레탄 주조사업: 물리적 특성이 우수하여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폴리우레탄 소재의 자동차 부품 생산 사업은 내후, 내마모, 내구력에 한계가 있는 자동차용 고무제품의 대체재로서 급부상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고급자동차에 사용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업이다.
- 정밀가공 부품사업: 전기식 연료펌프의 핵심정밀 부품을 비롯하여 점차 수요가 확대되는 초정밀부품 가공 사업으로 세계 우수기업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 II. 개성공업지구로의 진출 배경 및 사업 환경

### 1. 진출 배경 및 의의

중소제조업의 경영환경이 뚜렷한 활로를 찾지 못하고 더욱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자본이 저임금 고생산성의 노동력을 만났을 때의 효과를 기대하였고, 결정적으로 당사

의 인도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성공경험에 기초해 개성진출을 결심하였다.

개성공단으로의 진출은 생산비 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남북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는 분위기 속에서 민족 동일성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 2. 개성공업지구의 사업 환경

### 가. (주)개성대화의 사업 현황

환율의 하락과 이공계출신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기피현상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사는 “R&D, 영업 및 판로 개척은 남측에서, 제품의 생산은 개성에서” 라는 기본 원칙 아래 2005년 8월 (주)개성대화를 설립하였고, 현재 폴리우레탄 주조산업, 오일 Filter, 연료 Filter의 부품 및 조립품을 생산하고 있다.

### 나. 근로 환경

북한 노동자들의 학력은 높은 편이다. (주)개성대화의 경우 남녀의 성비가 55:45 이고 전문대졸 이상 대학 졸업자 35%, 중학교 졸업자(6년제, 남쪽의 고등학교에 해당) 55%, 기타 10% 수준이다. 경력은 다양하며 업종에 따른 차이는 있겠으나 손재

주가 좋아 속련속도는 빠른 편이다.

치열한 비교경쟁사회가 아닌 환경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인지 성격은 대체로 착한 편이고 부서별 결속력이 강하다. 직업 및 직종에는 남녀 구분 없이 개방적이나 가족관계에서는 보수적이고 가부장제의 전통이 강하다.

북한 노동자들은 남쪽보다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작업환경에 민감하며 특히 냄새에 예민하다. 이에 따라 복지차원에서 세면 및 샤워시설의 개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다. 사업자금 조달

시범단지 입주업체로서 초창기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이 큰 도움이 되었다. 처음엔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몰랐지만 수출입은행이 주최한 세미나 및 홍보물을 통한 정보를 통해 기금신청과 사용에 큰 도움을 받았고 그 결과 작년 9월 개성공업지구에 50억 규모의 시설투자를 이루는 결실을 맺었다.

#### 라. 향후 사업 계획

당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품생산을 개성에서 한다는 원칙 아래 폴리우레탄 주조 산업, 연료Filter와 오일Filter의 생산뿐만 아니라 산업용 연료펌프 생산라인

도 개성으로 이관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 Ⅲ. 개성공단 경제협력사업의 발전을 위한 의견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한국 경제의 호·불황과 상관없이 개성공단이 생존의 돌파구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역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저렴한데다,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최고의 장점으로 꼽는다. 여기에 정부의 금융지원이 보태진다면 그야말로 개성공단은 적어도 중소기업들에게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개성공단은 중소기업 유치만을 겨냥해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중국의 상하이 등 이름난 경제특구 못지 않은 세계적인 첨단 산업공단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국내 중소기업, 대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하기를 목매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역시 초기에는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전력, 용수 등 대기업이 들어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투자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중국에 들어가 실패하는 것보다 북한에 들어가, 설령 부도가 나도 북한에 뭔가 남겨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중소기업인들의 남다른 동포애도 개성공단 활성화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는 경쟁력을 잃어가는 기업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남북당국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개성공업지구의 성공이 평화통일의 초석이

되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6.15 남북공동 선언의 정신을 실천하여 개성공업지구가 남북 경제협력의 순수한 장으로 활용될 때 한반도 선진화의 꿈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